

전북 지역 시문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노용무(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근대문학, 지역문학, 전북 지역
시문학의 정체성과 과제 |
| 2. 전북 지역 시문학의 연구 현황 | 4. 결론 |

1. 서론

‘정도(定道) 백 년’이란 말이 있다. 이는 현 행정 구역인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라는 명칭이 불과 백 년 전에 생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전에는 전라도라는 통칭과 더불어 해안과 내륙을 구분하여 전라좌도와 우도로 불렸다. 따라서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주는 오랜 동안 전라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전라도란 현재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를 포괄하는 호남이라는 거시적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호남은 현재의 세 도를 아우르는 지역 명칭으로 모든 사회적 문화적 제 현상을 함축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은 전라남도과 제주도를 포함하는 거대한 범주가 아니다.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특히 전북 지역의 시문학을 대상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시문학사가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않고 지엽적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파편적이라는 이유는 몇몇 개별 시인의 경우 집약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문인의 경우는 그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앙문학과 지역문학의 관념적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바, 그 거리를 추적함으로써 정치적 무의식에 녹아든 근대와 근대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전북 지역 시문학의 연구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는 전북 지역 시문학의 범주를 한국전쟁 이전으로 시기와 대상을 구분하여 연구경향을 고찰하고, 이후의 연구경향을 포괄하는 전북 지역 시문학의 근대문학적 성격을 지역문학을 바라보는 탈식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 시문학의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전북 지역 시문학의 연구 현황

전라북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동고서저형으로 산수가 수려하고 넓은 곡창지대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예로부터 호남이 곡창지대를 이루는 원천으로 작용했지만 그만큼 착취와 고통을 수반했고, 이는 전북문화의 풍류와 저항정신의 근간을 이루어 한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¹⁾ 이를 배경으로 우리 지역은 찬란한 농경문화가 발달했으며 백제문화권의 중추를 담당했다. 전라도 문학을 일컬어, “원망과 희망 그리고 성취와 비탄의 정서적 순환을 거치면서 현실적 성취에 들뜨지 않는 깊이 있는 흥겨움, 비탄과 슬픔을 다시 기대와 희망으로 감싸안은 계면조의 흥”²⁾이라 보는 시각은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에 깊이 각인된 정신사적 궤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1) 임명진, 「전북 지역문학의 생성배경과 발현 양상」, 『작가와 사회』 17호, 2004, 겨울호, 31면.
- 2) 이종주, 「호남 문학의 문화적 배경과 정신사적 제양상」, 『호남의 언어와 문화』, 백산서당, 1998, 321면.

전라북도에는 ‘침단 전북’, ‘산엽 전북’보다는 ‘예도 전북’, ‘농도 전북’이나 ‘시향’ 혹은 ‘예향’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왔다. 본고의 관심사인 문학적 측면의 경우, 예로부터 우리 지역은 백제 최고의 가요인 「정읍사」와 가사 문학의 효시인 정극인의 「상춘곡」, 이매창과 김삼의당의 시조 등 뛰어난 문학적 전통을 이어 받은 곳이다. 또한 우리 소설사에서 근대문학의 전사적 성격을 지니는 판소리 문학과 더불어 한글을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전주 한지와 완판본의 고전소설 등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토대를 이루는 곳이 우리 지역이기도 하다.

전북 지역 시문학은 개화기 이후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출발로부터 연원한다. 근대문학은 전통의 단절과 계승이라는 기본 구도를 지닌다. 우리 지역 또한 근대문학의 성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신체시, 신시, 신소설, 신극 등 신(新)이라는 단절의 의미와 전근대와 근대의 계승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서사 양식이 근대소설적 양식이라는 전혀 다른 태생적 의미인 단절을 나타낸다면 서정 양식은 계승적 측면이 서사 양식에 비해 강하다. 앞서 논의한 우리 지역의 유산이 서정 양식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기에 서정 양식의 경우, 서사 양식의 그것보다 풍부하고 다채롭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 또는 조선적 근대의 특수성 등 한국의 근대문학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전북 지역의 시문학사 역시 전통의 단절과 계승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운명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북 지역의 시문학사를 이루는 초기의 형태란 당대 중심 문학이었던 경성을 향한 욕망의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칠게 순서를 잡을 수 있다.

- 김창술(전주), 1923, 『동아일보』, 「반항」.
- 유엽(전주), 1923, 『금성』, 「낙엽」.
- 신석정(부안), 1924, 『조선일보』, 「기우는 해」.
- 김해강(전주), 1925, 『조선문단』, 「달나라」.

이병기(익산), 1925, 『조선문단』, 「한강을 지나며」.
서정주(고창), 1936, 『동아일보』, 「벽」.
이한직(진주), 1939, 『문장』, 「풍장」.
유진오(완주), 1945, 『민중조선』, 「피리소리」.

전북 지역 출신 중 위 시인들의 인용 순서는 해방 전에 시작 활동한 차례이다. 이러한 점은 시문학사나 문학사적 의의 혹은 문학적 성취도나 작품의 완결성보다는 중앙문단에 등단한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김창술은 1903년 전주 출생으로 호는 야인(野人)이다. 그에 관한 일방적인 기록은 카프 일원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동경을 노래했다는 점,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고 1930년 전후의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전북 지역 연구자의 고찰에 의하면³⁾, 김창술은 무학의 노동자 시인이 아니었을 뿐더러, 해방 후까지 전주에서 큰 포목상을 경영하던 유족한 시인이었다는 점, 그 이익금을 사회주의 운동자금으로 제공하고, 김해강과 함께 시집 『기관차』를 발간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한국 전쟁 중에 북한군에 의해 처형당하기 직전 탈출하여 상경 후 행방불명되었다.

그는 카프 조직 당시 맹원으로 활동했으며, 임화·박아지·박세영 등과 함께 카프 제1차 방향전환 이후 이전의 관념성과 소개주의를 극복한, 근로 대중의 투쟁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본격적인 프로시 계열의 시를 창작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서사적 요소를 시에 적극 도입하고 강한 선전선동을 도모하는 등 프로문학사적 의의를 지니지만 예술적 가치나 작품의 형식미학적 측면에 대한 숙고는 드러나지 않는다.

김창술은 1931년 임화·박세영·권환·안막 등과 함께 『카프시인집』을 내고 1938년 김해강과 공동시집 『기관차』를 기획하지만 발간하지 못했다.

3) 최명표 편, 『김창술시전집』, 문예연구사, 2002.

그의 주요 작품으로 「촛불」은 신경향파의 중요 작품으로 언급되며, 「효」, 「전선으로」, 「지형을 뜨는 무리」, 「무덤을 파는 무리」 등의 작품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형상화한다. 또한 「긴 밤이 새여지이다」와 「전선으로」 등의 작품에서는 궁핍하고 참담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외에 「오월의 훈기」, 「앗을 대로 앓으라」 등의 노동자·농민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지만 무산대중의 이념을 직설적 관념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카프의 형상화 원리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

유업은 1920년대 동인지 문단시대를 이끈 주역으로, 본명은 춘섭이다. 그는 자비를 들여 문예지 『금성』을 발간하면서 「낙엽」을 게재하고, 한국 최초의 근대 서사시 「소녀의 죽음」(『금성』 2호, 1924.1)을 발표한다. 이후 범애주의에 입각하여 만물의 생명의를 고양하는 작품들을 발표하지만 시단의 주변부를 머물며 극예술협회를 창립하여 연극의 대중화에 기여하기도 하고, 1930년대 전후 계급문학 시기에 순수문학을 옹호하는 평문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유업은 순수문학파가 등장하는 이론적 토대를 이룬 선구적 업적을 이룬다. 이외에 다양한 방면으로 관심을 보이다가 입적하게 된다.

본고가 유업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곤혹스러웠던 점은 그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⁴⁾ 앞서 논의한 유업의 전기적 이력이나 시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나 자료가 빈약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 이미 이와 같은 망실감을 느낀 선배 연구자에 따르면, “1920년대 동인지 문단시대를 주도했던 그의 시에 관한 연구는 물론, 지금까지 작품의 정리 작업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도내 연구자들의 학문적 나태와 편중성을 드러내 준다.”⁵⁾는 날카로운 지적이

4) 이에 본고가 이 글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글은 최명표(『전북 지역 시문학 연구』, 청동거울, 2007)의 저서와 오하근(『전북현대문학상·문학사·작가론』, 신아출판사, 2010)의 저서이다.

5) 최명표, 위의 책, 16면.

도내 연구자의 일원으로서 안타깝게 다가온다.

신석정은 부안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한문을 공부했다. 1930년 서울로 올라와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박한영의 가르침을 받아 1년 동안 불전(佛典)을 배웠다. 6·25전쟁 뒤 태백신문사 고문을 지냈고, 1954년 전주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1955년 전북대학교에서 시론을 가르쳤다. 1961년 김제고등학교 교사, 1963년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전주상업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1967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북도 지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선물』을 『시문학』(1931.3.) 3호에 발표하면서 시문학과 동인으로 본격적인 시작활동을 보여준다.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문예월간』, 1932.1.)·「봄의 유혹」(『동방평론』, 1932.7-8.) 등 초기 작품에는 목가적인 전원에 귀의하여 생(生)의 경건한 기쁨과 순수함을 노래했다. 첫 시집 『촛불』(1939) 이후 『슬픈 목가』(1947), 『빙하』(1956), 『산의 서곡』(1967), 『대바람 소리』(1970)를 펴냈다. 그의 시세계는 ‘하늘’, ‘어머니’, ‘먼나라’ 등으로 표상되는 동경을 향한 회귀에서 점차 현실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 이후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드러내는 역사의식을 보이기도 하지만 후기에는 초기 서정시의 세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신석정에 대한 대략의 서술은 이미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사전적 맥락에서 작성한 바 그에 대한 연구 성과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시연구자라면 누구나 인정할 만큼 상당한 분량의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신석정에 대한 연구사의 경우, 전북 지역의 출신 중 유력한 시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인 맥락 이외에 학연이나 지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련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순수니 참여니 하는 작품의 경향과 신석정의 특정 시기 삶에 대한 선택적 대상화나 학연이나 지연 등 직간접으로 관계하는 맥락이 전북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벽’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해강의 본명은 대준(大駿)으로 전주 출생이다. 1922년 전주신흥학교, 1925년 전북 공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각처에서 교직생활을 지낸 그는 전

주사범학교, 전주고등학교 등에서 교육자이자 시인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김해강은 『조선문단』(1925. 11.)에 「달나라」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출범의 노래」, 「오월의 노래」(『조선지광』, 1926)와 같은 신경향파 시를 발표한다.

1930년대에는 「변절자여! 가라」, 「누나의 임종」 등의 프로시를 『대중공론』, 『동광』 등의 잡지에 게재하기도 한다. 그는 『시건설』(1936) 동인으로 참여하고, 김창술과 상술한 『기관차』를 기획하지만 발간하지 못하고, 이후 김남인과 함께 2인 시집 『청색마』(1940)를 펴낸다. 1940년대의 김해강은 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태양」 등 몇 편의 친일시를 쓰기도 한다. 한동안의 절필 후 『동방서곡』(1968), 『기도하는 마음으로』(1984) 등의 시집을 간행했다.

김해강의 시세계는 문단활동 초기인 카프 시기에 노동자·농민의 투쟁과 삶을 민족적 차원에서 드러내는 신경향파나 프로시의 시적 경향을 보여주며, 후기로 갈수록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통한 한국의 전통적 정한의 세계를 순수시적 경향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최근 발간된 전집⁶⁾에 바로잡아진 원전 확정 문제나 전북 지역에서 ‘학의 시인’으로 존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그의 친일시에 대한 이력 등에서 지역 연구자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병기는 익산 출생으로 국문학자이자 시조시인이다. 그는 전주 공립보통학교와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면서 고문헌 수집과 시조연구 및 창작 활동을 하였다. 이병기는 3·1 운동 후 권덕규, 임경재 등과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여 우리말 연구운동의 계기를 정초한다. 1925년 「한강을 지나며」를 『조선문단』에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조란 무엇인가」, 「율격과 시조」, 「시조와 그 연구」 등 시조 관련 평문을 발표하여 국문학 연구의 일정한 의의를 담보하기도 한다.

6) 최명표 편, 『김해강시전집』, 국학자료원, 2006.

이후 그는 국문학계의 주요 문헌 집필이나 국문학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문학사를 체계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주요 작품집은 『가람시조집』(1939), 『현대시조선총』(1957), 『가람문선』(1966), 『석류초』(1969)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백철과 함께 펴낸 『국문학전사』가 있고 이외 『표준국문학사』(1956), 『국문학개론』(1981) 등이 있다.

이병기에 대한 시문학사적 의의는 시조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 시조를 부흥시킨 현대시조의 선구적 업적을 지닌다. 또한 전북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북 지역의 동인지나 문학단체를 조직하는 데에도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현재에도 가람시조문학상이 익산에서 개최되어 시조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전북대학교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가람시문학상을 통해 현대시 분야에서도 그에 대한 깊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 중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학인들을 배출하는 데 그의 존재는 선구적 의의를 지닌다.

서정주는 고창 출신으로 호는 미당(未堂)이다. 그는 고창의 서당에서 공부한 후,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와 중앙불교전문학교를 거쳐 등단작 「벽」(『동아일보』, 1936)으로 시작활동을 시작한 이래 한국현대시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닌 시인이다. 서정주는 김달진, 김동리, 함형수 등과 함께 시동인지 『시인부락』을 창간하며 본격적인 시작활동을 보여주며, 해방 후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결성, 동아일보 사회부장, 문화부장, 문교부 예술국장 등을 역임하며 1949년 〈한국문인협회〉의 창립을 주도한다. 이후 조선대, 서라벌예대,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각종 협회의 장과 문학상을 수여받기도 한다.

주요 작품집은 첫 시집인 『화사집』(1941)과 『귀축도』(1948), 『서정주 시선』(1956), 『신라초』(1961), 『질마재신화』(1975), 『떠돌이의 시』(1976) 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현대시』, 『시문학원론』, 『세계민화집』, 『흑산호』, 『국화 옆에서』, 『미당 서정주 시전집』 등이 있다. 그의 시세계는 일반적으로

언어미학의 완성을 통해 생의 본질적 문제들을 탐구함으로써 존재의 영원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서정주는 전통적인 서정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기저로 하여 토착적인 언어의 세련미를 통해 시 형태의 균형과 질서를 추구했다는 시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서정주는 신석정과 더불어 전북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꼭 한번 넘어야 할 한국현대시사의 산맥이자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원천이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당문학관 건립 전후, 미당의 친일경력에 대한 문제제기나 친일작품에 대한 전시 문제 등을 제기한 주체는 전북 지역 연구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였다. 신석정의 경우, 최근 제자와 후학들에 의해 <석정문학회>가 발족되어 문학관 설립 등 석정문학에 대한 선양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의 작품과 삶을 온전히 연관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정주의 경우, 친일 시비와 권력과의 유착 관계 그리고 신석정의 경우,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의 행적에 대해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경향으로부터 지역 연구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지역 연구자들이 놓여있는 지역적 한계일 수 있다. 서정주와 신석정이라는 두 시인과의 인간적 관계나 지역적 연고 혹은 사제간의 문제 등이 일종의 ‘벽’으로 작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한직은 전주 출생으로 호는 목남(木南)이다. 경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대학(慶應大學) 법학과에서 공부했다. 1943년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잡지 『진망』을 주재했고, 6·25전쟁 때는 공군소속 창공구락부로 종군했다. 1956년 조지훈과 함께 『문학예술』의 시 추천을 맡아보았고, 1957년 <한국시인협회>에도 관계했다. 1960년 공보실 문정관(文政官)에 임명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 후 운명을 달리한다.

대학 재학시절인 1939년 『문장』지에 「풍장」, 「북극권」 등을 발표하여 문단에 나온 그는 해방 이전에 「온실」, 「낙타」, 「붕괴」, 「범람」 등의 주요

작품이 있고, 「상아해안」, 「동양의 산」, 「여백(餘白)에」 등을 해방 이후에 발표했다. 초기에는 새로운 이미지의 생성과 충돌을 형상화하는 모더니즘 경향의 시를 썼으나, 한국전쟁 후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윤리의식과 인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는 시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시집으로 『청룡』(1953)과 『이한직 시집』(1977)이 있다.

유진오는 완주 출생으로 호는 무헌(無軒)이다. 1941년 중등학교를 거쳐 일본 도쿄문화학원에서 수학한 그는 1945년 『민중조선』에 「피리소리」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한다.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한 유진오는 그 해 ‘국제청년데이 기념식장’에서 낭독한 「누구를 위한 벽차는 우리의 젊음이나」가 문제시되어 투옥되기도 한다. 그는 김상현, 김광현 등과 함께 『전위시인집』(1946)을 간행하고 1947년 문화공작대에 참가 지리산 유격대로 활동 중 체포되어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는다. 이후 무기로 감형되어 전주형무소로 이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유진오는 한국사의 격변기에 등단하여 자신의 이념을 온 몸과 시작품을 통해 구현하려 했다. ‘시단의 결사대’ 혹은 ‘육탄시인’이나 ‘인민의 계관시인’으로 호명되었던 그는 정치적 신념과 실천을 아우르고자 하면서도 서정시를 썼던 시인이다. 분단의 현실이 고착화되면서 그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의 명편 「순이」에 대해 “한국적 정서의 한 자락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정한의 세계에 맥락이 닿아있는 가작”이라는 평가가 낮설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까지가 해방 전후에 주로 활동했던 전북 지역의 주요 시인들이었다. 그밖에 전북 지역 출신이거나 거주했던 혹은 거주하고 있는 시인들, 그리고 전북 지역을 작품의 주된 모티프로 형상화한 시인들 등으로 전북 지역 시인들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먼저, 전북 지역에서 주로 시작할

7) 최명표, 「유진오시연구」, 『국어문학』 35집, 2000, 366면.

등을 하다 작고한 시인으로 백양춘, 박항식, 이철균, 정렬, 고현, 이병훈, 이광웅, 심호택 등의 시인이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인군으로 최승범, 장순하, 이기반, 허소라, 김남근, 최형, 정양, 이운용, 김동수, 양병호, 김익두, 진동규, 안도현, 김용택, 이희중, 강연호, 복효근, 오창렬, 박성우 등의 시인들이 있다.

다음으로 전북 지역과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논의가 더 활발한 시인군으로는 박봉우, 신동엽, 박정만, 고은, 오세영, 강인한, 강형철, 이가림, 김영석, 김형영, 이준관, 하재봉, 유하, 남진우, 이동재, 박남준, 박형준, 오봉옥 등의 시인들이 있다. 이외에 각 시군에서 활동 중인 여러 단체의 시인들과 함께 문인협회와 작가회의 소속 시인군이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원이라 할 수 있다.

3. 근대문학, 지역문학, 전북 지역 시문학의 정체성과 과제

근대문학이란 전근대문학을 근본향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문학의 기점으로 거론되는 갑오경장 기점설은 전근대와 근대의 시기를 구분하는 구획선으로 작용한다. 이 시기구분으로서의 전근대와 근대의 기점은 그대로 근대문학과 지역문학을 나누는 기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문학은 전근대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근대 이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이전, 지역문학은 고유한 장소와 그곳에서 경험된 인격을 표현하는 고양된 문화 양식⁸⁾이었기에 근대 이후 제도로서의 근대문학이 생겨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대문학과 지역문학과의 관계가 지역문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근대문학 자체가 중앙문학 혹은 중앙문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중심의

8) 송기섭, 「지역문학의 정체와 전망」, 『현대문학이론연구』 24집, 2005, 5면.

문학과 지역의 문학이란 이원적 구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근대 이전의 문학관은 각각의 공간적 배경을 향유하며 자신들의 문학을 중앙/주변, 서울/지방 등으로, 전자에 대한 후자의 열등함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근대라는 제도 혹은 제도로서의 문학 개념이 근대화되면서 나타난 관점이 지역문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학은 근대 혹은 근대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⁹⁾ 왜냐하면 지역문학 자신의 지역성, 정체성 등의 고유성을 자신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근대문학 혹은 중앙문학이라 불리는 권력의 호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근대문학과 지역문학의 관계는 서구와 비서구를 변별하는 오리엔탈리즘의 구조와 너무도 닮았다.¹⁰⁾ 마치 일제의 식민정책이 유럽의 제국주의를 척도로 이루어진 옥시덴탈리즘¹¹⁾이듯 우리의 지역문학을 바라보는 중앙문학의 관점은 큰 타자(큰 중심, 서구)와 작은 타자(지역, 주변) 사이에 낀 작은 주체(작은 중심, 서울)의 전도된 시각일 뿐이다. 즉, 스스로 중앙문학이라 명명하는 작은 주체는 큰 타자인 서양 혹은 큰 중심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을 소유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타자인 지역에 대한 우월의식과 복종심을 폭력적으로 구조화하면서 자신의 큰 타자에 대한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한다.

이러한 중앙문학의 이중성은 그대로 지역문학의 두 얼굴로 확대되는 시스템으로 나타난다. 지역문학의 두 얼굴이란, 자신의 문학과 그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호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첫째라면 그것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인 중앙문단을 향한 인정투쟁이 둘째이다. 왜냐하면 지역문학의 정체성은 그 자신의 탐구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문학의 호명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학의 지역성이란 근

9) 노용무,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전북지역 시문학의 탈식민성 연구」, 『국어국문학』 147호, 2007, 445면.

10) 위의 논문, 446-450면.

11) 노용무, 「천일시와 식민담론」, 『국어교육』 109호, 2002, 451-456면.

대문학 혹은 중앙문학의 근대적 성격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지역성이란 근대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지역성은 소위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슬로건이 표상하듯 우리문화의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관념이기도 하다.

지역문학의 성격은 지역성으로 집약되는 바, 이는 근대문학의 근대성 혹은 중앙문학의 중앙성/중심성과 변별할 때 그 특징을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다. 먼저 근대성이 상하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수직성과 배타적 성질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성을 꼽을 수 있다면 고유의 장소와 장소를 이어주는 수평성과 공간의 역동적 성격을 강조하는 현장성을 담보하는 것이 지역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중심성과 주체성을 표나게 강조하는 근대성이 중심/주변, 주체/타자, 중앙/주변, 이성/감성 등의 이분법적 체계를 통해 시스템화되는 것처럼 지역성 역시 이에 준하여 날조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지역성의 근간이라 규정되어 온 주변성이나 타자성은 바로 제도로서의 근대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지역성의 성격을 누가 규정했는가이다. 지역에서 종사하는 문학인이나 연구자는 스스로 성찰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역문학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역성으로 규정할 수 있었는가. 혹은 자신의 문학적 특질과 자기 지역의 고유한 변별성을 스스로 언명하거나 호명할 수 있었는가. 이렇듯, 회의적이지만 비판적인 시선은 다양성과 다원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걸맞게 시의적이기도 하지만 지역문학 스스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앞서 거칠게 짚었던 전북 지역 시문학의 연구현황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해방 전 시인들에 집중된 연구 경향이다. 해방 전후로 활동한 전북 지역 시인들은 상술한 정도의 시인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작가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필자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문학사적 의의나 시문학사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이라는

‘중심’ 이외의 모든 ‘주변’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학문 권력과 담론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문학 연구는 문학적 보편성을 우선으로 유명 작가를 연구하는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 전북 지역 대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문학 관련 강좌는 모두 문학적 의의를 담보하는 연구 대상을 지향하고 있고, 지역 문학 관련 강좌는 전무한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 문학의 현실은 해방 이후 시인군을 연구하는 경향의 기저로 작용한다.

둘째로는 해방 이후 시인들의 경향이다. 이는 앞의 경우와 직간접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다. 전북 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재 활동 중인 시인보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예를 들어, 지방 신문의 신춘문예나 지방 문예지의 등단 이후 서울 소재의 등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서평이나 평론의 경우 외에 본격적인 문학 연구의 경우는 그 편중이 더 심하다. 연구 대상을 누구로 하는가에 따라 연구 논문의 질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것이다. 지역의 시인을 연구 대상으로 할 경우, 동학들의 무관심과 더불어 헛수고 내지 발품만 판다는 안타까운 지적을 필자는 몇 차례 들어왔고 스스로도 동학에게 했었다. 이러한 점은 결코 연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대의 학문적 풍토를 대변하는 하나의 풍경이기도 하다.

셋째로는 위 항과 관련한 문제로, 연구자들의 정치적 무의식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경향은 앞서 논의한 서정주와 신석정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서정주나 김해강의 친일 경력 그리고 신석정의 해방기 행적에 대한 금기는 학연이나 지연의 얽힘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적 무의식에 해당한다. 연구자들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가 아님 나름 전문가적 관점의 우위에 대한 자부심인가. 이러한 질문은 결국 연구자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문제이겠지만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좌우익의 담론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시대의 자화상 일 것이다.

넷째로는 지역문학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중성의 문제이다. 지역문학의 이중성이란 자신의 지역문학에 대한 정체성 혹은 지역성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중앙문학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매혹/반감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술한 지역문학의 두 얼굴을 의미한다. 다음의 글은 전북 지역에서 발간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의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창작과비평사, 1993) 발문 「갑오농민전쟁과 한국현대사」의 일부분이다.

나는 연전에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약칭 동백사)의 초청으로, 함께 농민군 유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동백사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었다. 지역에서 뜻있는 일을 한다는 것의 고충을 조금은 짐작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중략) 우리는 오랫동안 1894년을 갑오경장의 해로서만 기억하고 농민전쟁을 간과하거나 또는 부차적인 삽화로 처리해왔다. 이러한 의식은 이미 일제 시대의 지식인 사회에서 비롯되었으니, 우파는 물론이고 좌파 역시 그러했다.

필자는 인용문을 다른 지면을 빌어 전북 지역의 연구 경향을 이미 논한 바 있다.¹²⁾ 이 글의 맥락에서 주지하고 싶은 것은 중앙문단의 ‘나’가 ‘지역(전주)’문단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인용문의 표면에 나타난 두 가지 관점은 지역에서 뜻있는 일을 한다는 것과 그 고충이 첫째이고 1894년을 동학이 소외된 갑오경장으로만 떠올리는 현실이 둘째이다. 먼저, 첫째의 경우 지역에서 뜻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중앙에서 해야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동학이 전북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갑오경장에 가리운 것은 정치적 (무)의식에 침윤된 하나의 풍경이거나와 그것은 좌파든 우파든 중앙문단에서 자행된 국가적 차원의 망각하기란 폭력이라 할 수 있다.

12) 노용무,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전북지역 시문학의 탈식민성 연구」, 앞의 논문, 448-449면.

동학이 지닌 저항성과 전복성은 체제유지의 이데올로기와 좌우익의 헤게모니 투쟁에 의해 주변화되거나 타자화된다. 주변화와 타자화를 극복하고 하나의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이 <동백사>의 의의이자 전북 지역에 배태되어 있는, 주요 문학의 모티프를 전북 지역의 일꾼으로 꾸려나가는 지역 정체성을 생성하는 근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용문의 문면에는 탈락되어 있지만 지역문학의 또 다른 면을 읽어낼 수 있다. 그것은 인정투쟁이다. 지역에서 뜻있는 일을 한다는 것, 달리 말해 <동백사>가 뜻있는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앙문단의 '나'인 서울 거주 일급비평가의 발문이 필요하다는 점, 그 수고의 결정체인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가 전주 소재 출판사가 아닌 중앙의 유력 출판사를 경유해야 한다는 사실, 인용문 정도의 발문을 쓸 필력이 전북 지역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등이다.

이 지점에 이르면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논의가 모두 총화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지역문학의 지정학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던 터 몇몇 논의에 주목을 요한다. 하나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항대립적 인식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폄하되었던 지역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근대 이후 지속된 민족 혹은 국민국가 개념과 서구중심주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등 주변의 논리를 억압하고 배제했던 하나의 강력한 중심을 향한 반성적 시각”¹³⁾이 필요하다는 시각. 또 하나는, 어떤 사회의 중심 지배 집단에서 배제된 집단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 배제 상태에 비판적인 의식이며, 또한 총체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지배 집단의 기도에 대한 저항하는 의식¹⁴⁾이 선행해야 한다는 관점. 또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의 하위주체나 변두리의 타자가 아닌, 혹은 서울을 향한 증오의 시선을 돌리거나 전통의 집적체로서의 향토나 절대가치의 공간도 아닌, 중앙패권주의나 지방우월주의에 대한 지역 구심주의(local centripetalism)¹⁵⁾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13) 이재봉, 「지역문학사 서술의 가능성과 방향」, 『국어국문학』 144호, 2006. 12, 60면.
 14) 고부웅, 「에드워드 사이드:변경의 지식인」, 『현대시사상』, 1996년 봄호, 99-100면.
 15) 박태일, 「지역시의 발견과 연구」, 『한국시학연구』 6호, 88-89면.

특히나 전북 지역의 문학 혹은 문학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역 문학의 관점에 선 지역 연구자라면 경청할 만하고 주의를 요한다. 물론 이러한 지난한 작업은 중앙 혹은 중심을 향한 매혹과 동경의 빠아픈 자기 반성을 전제로 가능하다. 또한 중심/주변, 서울/지방의 이원화된 구도에서 후자가 전자를 전복하는 또 다른 서열제도의 폭력적 순환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호남 지역 글쓰기의 특징은 “동경과 향의가 복합된 패러독시칼한 정서/분위기에는 역사경험의 실패와 그것을 회복하려는 욕망이 내재해 있으며, 그 감춰진 의미에서 제도권 논리와 체제수호적인 이론을 거부하는 혼합된 동기들과 상충되는 욕망들이 복합된 논리 초월의 직관과 감성적인 글쓰기로 나타난다.”¹⁶⁾ 따라서 일관된 지배논리가 이성애 기초해 있다면, 반체제적인 저항의 논리는 감성에 좌우된다. 이러한 논의는 본고에서 논의한 근대문학과 지역문학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관점이자 <후요십조> 이래 전라도 지역을 수사하는 호명을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 읽어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축적된 연구 성과의 후속 작업은 장르, 시기, 지역, 시인별로 항목화/계보화하여 내용과 형식을 아우르고, 망실된 자료의 복원 및 조사/정리하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문학 연구자는 본고에서 주지한 지역문학의 지역성이나 중앙문학과 전북문학의 종속성, 지역문학을 연구한다는 당위성과 의의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이 선행해야 한다. 전북 지역 시문학 연구자의 몫이다.

전북 지역 문학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지역문학

16) 전정구, 「호남 지역 문학작품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징」, 『현대문학이론연구』 26집, 2005. 12, 272면.

관련 강좌의 개설과 더불어 각 학과간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지역 출신 작가들의 기초적인 자료 확보와 정리/분석 작업은 도 내에서 발행되는 문학관련 매체에 대한 연구와 병행되어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잠재적 시인군이라 할 수 있는 각 기관별 문학창작 관련 강좌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도 도외시킬 수 없는 문제이다.

<국문초록>

이 글은 전북 지역 시문학의 연구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는 전북 지역 시문학의 범주를 지역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정하여 시기와 대상을 한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사 및 연구 현황을 고찰한다.

전북 지역의 시문학은 시문학사적 맥락에서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않고 지역적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 하면, 몇몇 개별 시인의 경우 집약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문인의 경우는 그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앙문학과 지역문학의 관념적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바, 그 거리를 추적함으로써 정치적 무의식에 녹아든 근대와 근대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전북 지역 시인들을 1950년을 전후로 나누어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북 지역 시문학의 과제와 제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전북 지역 시문학, 근대문학, 지역문학, 정체성, 지역성.

<참고문헌>

- 고부웅, 「에드워드 사이드:변경의 지식인」, 『현대시사상』, 1996년 봄호, 99-100면.
- 노용무, 「친일시와 식민담론」, 『국어교육』 109호, 2002, 451-456면.
- _____,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전북지역 시문학의 탈식민성 연구」, 『국어국문학』 147호, 2007, 445면.
-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1993.
- _____, 『전북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1999.
- 박태일, 「지역시의 발견과 연구」, 『한국시학연구』 6호, 88-89면.
- 송기섭, 「지역문학의 정체와 전망」, 『현대문학이론연구』 24집, 2005, 5면.
- 오하근, 『전북현대문학 상·문학사·작가론』, 신아출판사, 2010.
- 이운룡, 『한국시의 의미구조』, 신아출판사, 1995.
- _____, 『언어와 시정신』, 신아출판사, 1997.
- _____, 『한국 시문학의 주류』, 푸른사상, 2003.
- 이재봉, 「지역문학사 서술의 가능성과 방향」, 『국어국문학』 144호, 2006. 12, 60면.
- 이종주, 「호남 문학의 문화적 배경과 정신사적 제약상」, 『호남의 언어와 문화』, 백산서당, 1998, 321면.
- 임명진, 「전북 지역문학의 생성배경과 발현 양상」, 『작가와 사회』 17호, 2004, 겨울호, 31면.
- 전정구, 「호남 지역 문학작품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징」, 『현대문학이론연구』 26집, 2005. 12, 272면.
- 천이두, 『우리시대의 문학』, 문학동네, 1998.
- 최명표, 「유진오시연구」, 『국어문학』 35집, 2000, 366면.
- _____, 『전북 지역 시문학 연구』, 청동거울, 2007.
- 최명표 편, 『김창술시전집』, 문예연구사, 2002.
- _____, 『김해강시전집』, 국학자료원, 2006.

[Abstract]

Current Situation and Task of Studies on the local Poetry in Chonbuk

Noh, yongmoo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of studies on the local poetry in Chonbuk and find out its future task.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is goal, this paper set up the category of the local poetry in Chonbuk as viewpoint gazing on the local literature, limited the period and the objects, and considered its history of study inclu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tudies.

The local poetry in Chonbuk has not been studied properly but considered peripherally and fragmentally. That's because the results of studies on most of local poets in Chonbuk hadn't been accumulated except for several figures. In this point, the conceptual distance between central literature and local one could be confirmed, moreover the modern and modernity dissolved in political unconsciousness could be understood by tracing the distance. Therefore this paper, in which the poets of Chonbuk area are divided in two groups; ones before 1950 and the others after 1950, suggests the current situation of studies and the future task of the local poetry in Chonbuk.

Key Words: the local poetry in Chonbuk, modern literature, local literature, identity, locality

노용무

전북대학교 강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nostarno@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7월 2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8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